

summer / fall 2018 — vol.7

동행

Special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프레더릭 레이턴(Frederick Leighton), 실타래 감기 Winding the Skein, 1878경
캔버스에 유화, 100.3 x 161.3cm,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완히고 설켜 어찌해 볼 엄두가 나지 않다가도 한 올 한 올 시간을 들여 풀었다 다시 감으면
전보다 더 더욱 늘릴 줄 알고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

인생은 실타래와 같다.

Contents

summer/fall 2018 — vol.7



Story

- 02
힐링에세이
알리즈 웰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 08
힐링로드
숲이 말을 걸었다
그저 쉬다 가라고
- 16
힐링&무비
영화 '러스트 앤 본'과 함께
: 스테파니의 회복
- 20
힐링라이프
안부를 전해요, 당신의 마음에게

With U

- 22
#가정폭력
#Me too도 비껴가는 가정폭력
- 24
전문가 칼럼
가정폭력 피해자의 마음가짐
- 26
피해자 수기
세상을 향한 한 걸음
- 28
알아두세요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 30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당신 곁에 든든한 울타리
- 34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I
아름다운 동행, 법정동행

- 38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II
농약소주 사건 그 이후
피해자 지원 사례

News

- 44
연합회 뉴스
센터 뉴스
범죄피해자 감사편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사보

통권 7호(월간 비매물)
발행일 2018. 7. 30
발행인 김갑식
발행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디자인 화이트 02.512.3747
인쇄 서진문화인쇄사 02.2274.1439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ll is well

알 이즈 웰, 알 이즈 웰, 알 이즈 웰.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write-photograph 최다솜(자유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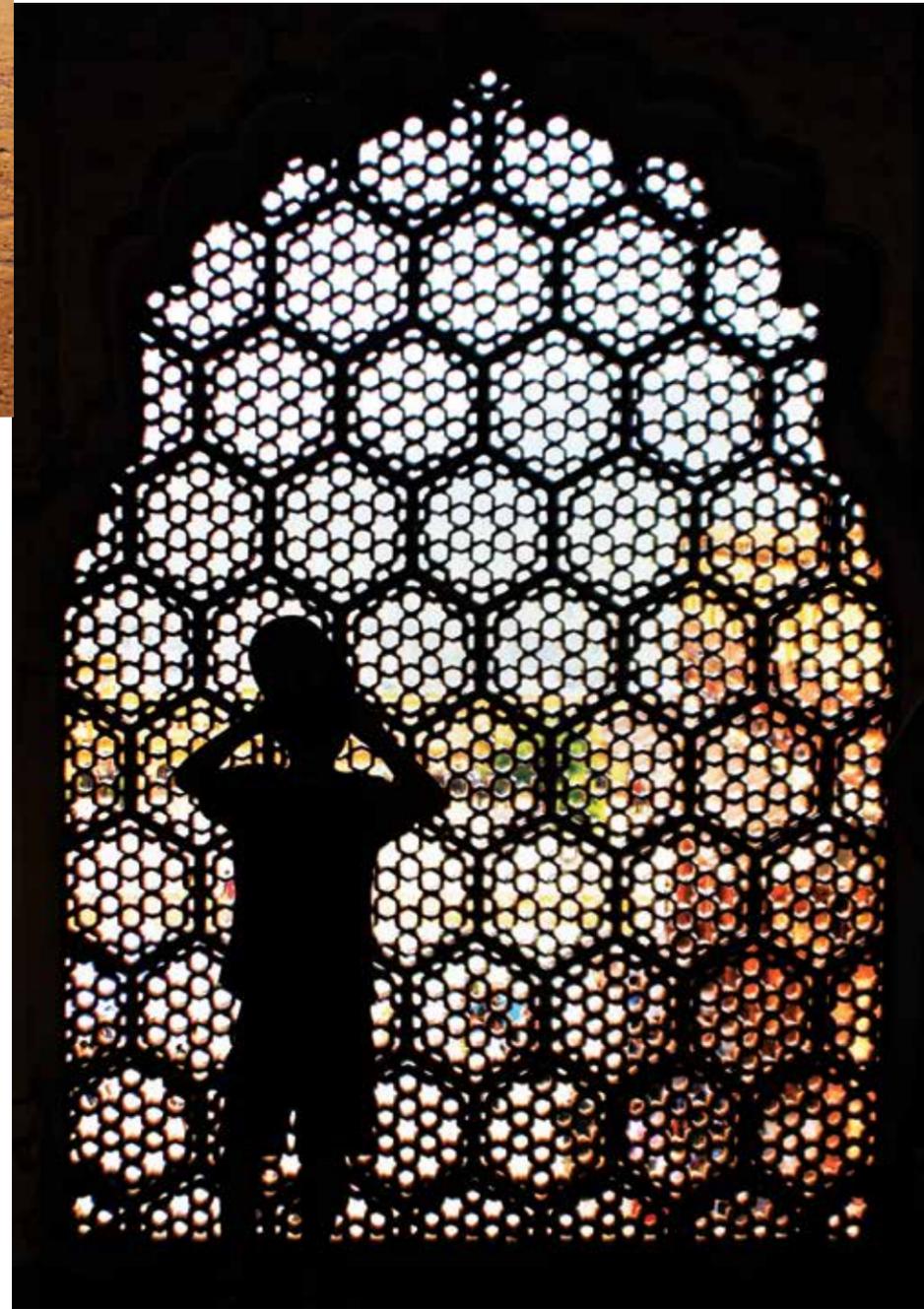


알 이즈 웰
울 이즈 웰(All is well)의
인도식 영어 발음. 2009년 개봉작
'세 얼간이'의 대사

당신 옆에
마음 곁에
있을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때때로 어찌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코 상상하지 못했고,
절대로 바라지 않았던, 그날처럼.

망가진 마음
뒤영킨 삶.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잘 버텼고,
충분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게 나일 때.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요.

힘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힘을 낼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언젠가 삶이 우리를 모질게
만들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운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훌륭하게 견디는 것이 행운' * 이라는 것.



*로마제국의 제16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말



STORY 힐링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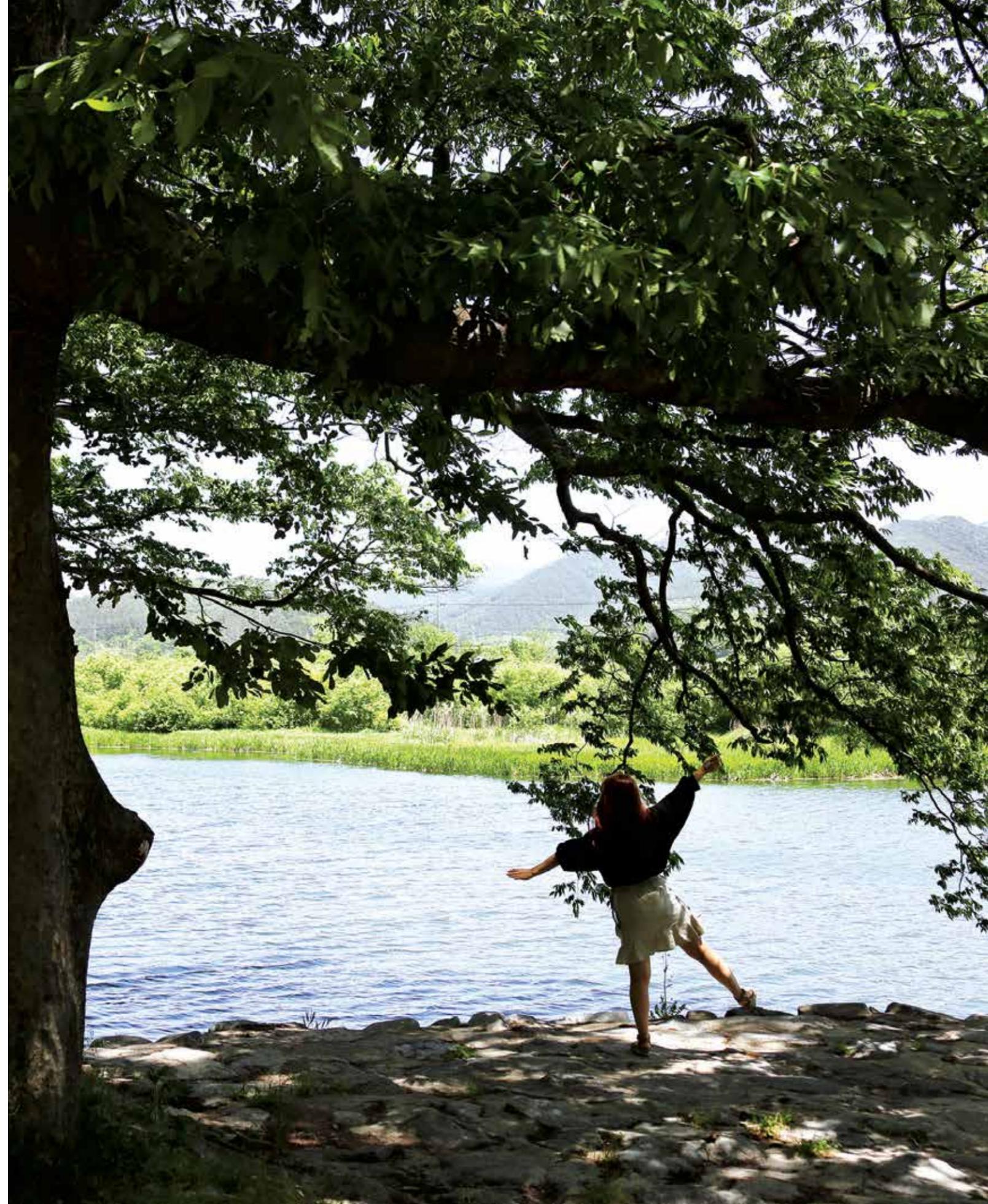
숲이 말을 걸었다

Healing

그저 쉬다가라고

한 해의 중간.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할 때다.
자연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안고 한 도시를 찾았다. 신록 가득한 그곳에서 진짜 휴식을 만났다.

edit 최다솜(자유기고가) cooperate 한국관광공사





빛이 감도는 흰색부터 진분홍에 이르는 커다란 꽃송이가 탐스럽다. 화순은 전국 최대의 작약 주산지다.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핀 작약을 많이 만나게 된다. 둔동마을 맞은편 구암리에는 김삿갓 종명지가 자리했다. 전국을 구름처럼 떠돌던 김삿갓(본명 김병연)이 마지막 숨을 거둔 마을로, 머물렀던 사랑채와 안채, 사당 등이 복원되어 있다. 김삿갓은 화순의 절경에 반해 그의 고향인 경기도 양주 땅을 버리고 이곳 동북면 구암마을에서 생을 마감했다. 종명지 왼편에는 김삿갓의 시비를 전시한 삿갓동산이, 마을 뒤편에는 그가 죽은 뒤 초분을 했던 초분 터가 남아 있다.

마음 쉬어가는 연둔 숲정이

이맘때 화순은 짙어진 녹음 아래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던 어린 날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할머니 무릎에 누워 느끼던 그 푸르고 맑은 바람은 어린 마음에도 감탄할 만큼 아주 시원하고 달았다. 그리운 기억의 언저리와 맞닿아 있을 것 같은 길을 달려 둔동마을로 향했다. 연둔리 둔동마을은 숲정이가 그림같이 펼쳐지는 풍경으로 소문났다. 숲정이는 '마을 근처 숲'을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1500년경 여름철 홍수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은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울창한 숲을 기대하고 조성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레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름다운 숲이 됐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맘때 화순은 짙어진 녹음 아래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던 어린 날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할머니 무릎에 누워 느끼던 그 푸르고 맑은 바람은

숲정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금씩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 500년 넘는 세월을 자연과 사람이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셈이다. 숲정이는 마을 앞 동북천의 물길을 끼고 700m쯤 이어진다. 연둔교를 건너 숲길로 들어서면 느티나무를 앞세운 거목 200여 그루가 반긴다. 팽나무, 서어나무가 얽혀 만든 그늘이 아늑하다. 물 아래로 뻗은 왕버들은 마치 물속에 한 그루를 더 품은 듯 신비롭다. 둔동마을 숲정이는 그 아름다움에 비해 인적이 뜸하고 고요하다. 끝에서 끝까지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충분히 무겁지 않은 사색에 빠져들기 좋다. 길 중간중간에 놓인 의자는 피로하지 않은 발길마저 붙든다. 편안히 앉아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초록이 주는 청량한 기운에 마음마저 말갈게 갠다. 숲정이에서 나와 다시 연둔교를 건너면 작약 꽃밭이 화려하다. 분홍



방랑을 멈추게 하는 절경 화순적벽

방랑시인 김삿갓을 멈추게 한 화순의 으뜸 풍경은 다름 아닌 적벽(赤壁)이었다. 적벽은 조선 중종 때 화순에 유배된 신재 최산수가 중국 양쯔강의 적벽에 버금간다며 이름 붙인 붉은 절벽이다. 화순에는 동북천 상류인 창랑천을 따라 노루목적벽과 보산적벽, 창랑적벽, 물염적벽 등이 늘어서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합쳐 '화순적벽'으로 부른다. 화순적벽 가운데 빼어나기로는 노루목적벽이 꼽힌다. 1985년 댐이 건설되면서 절벽 30m가량이 물밑에 잠겼는데, 그럼에도 웅장한 자태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깎아지른 듯한 수백 척 단애 절벽이 물에 비쳐 장관을 이룬다.



노루목적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30년간 출입이 통제됐다가 2014년 10월 개방됐다.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건 아니고 화순군에서 화순적벽 버스 투어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버스는 매주 수요일과 토·일요일 하루 두 차례(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노루목적벽으로 향한다. 보산적벽과 노루목적벽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에 잠시 들렀다가 노루목적벽 맞은편 망향정에서 40분쯤 머무는 여정이다.

망향정이 있는 망향동산에서 노루목적벽까지는 600m 정도 떨어져 있다. 댐 수위가 낮아지면 물에 잠긴 적벽 부위가 노출돼 한걸 웅장해 보인다고 하는데 어쩐지 좀 아쉽다. 할 수만 있다면 물길을 건너 켜켜이 쌓인 세월의 깊이를 제대로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을 쪽 빼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만 한다.

화순적벽 가운데 쉽게 가볼 수 있는 적벽은 물염적벽이다. 김삿갓도 물염적벽을 자주 찾아 시를 읊었다고 전한다. 물염적벽이 바라다보이는 언덕에는 물염정(勿染亭)이 있다. 물염 송정순이 16세기 중엽에 세운 정자로 '세상 어느 곳에도 물들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 정자 안에는 김인후, 이식, 권필 등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시문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1966년 중수 당시 기둥 하나를 가다듬지 않은 배롱나무로 바꿨는데 이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다.

오래 머물고 싶어라 누각과 정자

화순을 여행하다 보면 물염정 말고도 수많은 누각과 정자를 마주하게 된다. 누각과 정자를 일컫는 누정은 예부터 경치가 좋은 곳에 지어졌다. 다시 말해 누정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곧 화순이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땅임을 의미한다.

동북촌의 지류인 남면의 외남천(사평천)을 거슬러 오르면 녹음이 우거진 임대정 원림을 만난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9호로 지정된 임대정 원림은 정자와 연못, 원림이 한데 어우러져 운치를 빛어낸다. 임대정 원림을 꾸민 사람은 조선 철종 때 병조참판을 지낸 사애 민주현이다. 그는 1862년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해서 이곳에 정자를 짓고 '임대정(臨對亭)'이라 이름 붙였다. '임대(臨對)'는 중국 송나라 유학자의 '낙조임수대려산(落朝臨水對廬山)'이라는 시구에서 따온 것으로 '산을 대하고 연못에 임했다'는 뜻이다.

소박한 정자는 나지막한 바위 언덕에 터를 잡았다. 나무에 적당히 둘러싸여 아늑하고 시원하다. 세월에 곰삭은 마루에 걸터앉아 다리를 대롱거리며 푸른 계절을 들이마신다. 정자 옆 아담한 연못에는 '세심(洗心)'이라고 새겨진 바위가 돌이끼를 덮고 있다. 세심은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으로 풍류를 즐기는 주인의 마음가짐을 엿보게 한다.



정원은 정자에서 그 아래 두 개의 연못으로 조붓하게 이어진다. 홍련과 백련이 꽃을 피우는 네모난 연못 가운데에 둥근 섬을 만들어 두고 배롱나무를 심었다. 초록색 물감을 잔뜩 풀어놓은 듯 차분한 연못은 여름이면 빨갛고 하얀 꽃송이가 마치 다른 세상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동면 서성제 안에 있는 환산정(環山亭)도 운치가 제법 좋다. 환산정은 병자호란 당시 의병을 이끌고 청주까지 진격했던 백천 류함이 인조의 항복 소식을 듣고 낙향해 지은 정자다. 본래 '환산(環山)'이란 이름대로 산으로 빙 둘러싸인 깊은 곳에 있었으나 1967년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물 위에 섬처럼 떠 있게 됐다.

마을과 정자를 잇는 좁은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 들어가면 환산정을 만난다. 정자는 수직으로 우뚝 솟아 있는 서암절벽을 앞에 두고 저수지 가운데 그림같이 자리했다. 환산정은 분주한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다. 비통함을 달래려 세웠다지만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싫은 묘한 설렘도 있다. 별이 반짝거리는 물가에 앉아 망중환을 누리기도 그만이다.

능주면 관영리 지석천 상류에 자리한 영벽정(映碧亭)은 화순을 대표하는 누각이다. 조선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김종직과 양평손이 쓴 시 등으로 보아 16세기 후반 관아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벽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으로 연주산을 마주 보고 있다. '영벽(映碧)'이라는 이름은 연주산의 자태가 지석천의 맑은 물빛에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능주팔경 중 하나로 예부터 많은 시인과 묵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선인들은 영벽정에 올라 시를 읊고 풍류를 즐기며 세상 시름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았다.

누각에 오르면 지석천과 연주산이 기둥 사이로 들어오고 옛사람들의 글귀가 병풍 두르듯 빼곡하게 걸려 있다. 적당한 데 자리를 잡고 강물을 내려다보는 맛이 시원하다. 영벽정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맞은편 연주산에 올라 누각과 어우러진 풍광을 감상하는 것도 운치 있다. 가장 낭만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순간은 경전선 기차가 영벽정 바로 곁을 지나는 때다. 능주의 너른 들판을 달리던 기차는 지석천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90도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누각을 비껴간다.

HEALING with MOVIES



‘영화로 보는 우리’는 영화를 통해 우리의 다양한 상처들을 마주하고, 치유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write 방미나(나우심리상담센터 대표)

영화 ‘러스트 앤 본’과 함께 : 스테파니의 회복

영화 ‘러스트 앤 본(Rust&Bone)’의 주인공 스테파니는 범고래 조련사다.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와 화려한 경력을 가졌지만 늘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눈치다. 남자친구에게 느닷없이 화를 내거나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그녀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몸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 그녀를 보안 요원 알리가 집에 데려다주면서 두 주인공의 인연이 시작된다. 어느 날, 쇼를 진행하던 스테파니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난다. 범고래가 무대를 덮치면서 수족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스테파니가 깨어났을 때는 무릎 아래 두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다. 그녀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장애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충격에 빠졌다. 치료와 재활에 의지가 없었다. 남자친구도 떠나보내고 직장동료들의 방문도 달갑지 않았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녀에게 힘이 되지 못했다. 그저 그녀는 어두운 방에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오롯이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다.



러스트 앤 본(Rust&Bone)
2013년 개봉
감독: 자크 오디아르
출연: 마리옹 꼬띠아르(스테파니 역),
마디에스 쇼에나에츠(알리 역)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예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신이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무지개가 뜰 거예요.
 아마도 그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당신을 완벽한 길로 이끄는 문을 열 수 있을 거예요.

- 영화 '러스트 앤 본' 삽입곡 피어워크 중에서



스테파니가 보이는 우울함과 대인기피 증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이른바 '트라우마' 증상과 유사하다.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신체 증상들로 이루어진 증후'를 말한다. 증상은 사건 발생 한 달 후, 심지어 일 년 이상 지나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는 해리현상이나 공황 발작, 환청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공격적 성향,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약물 남용 등의 연관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다양한 트라우마를 연구해온 정신과 전문의 김준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비극의 정점에서 멈춘 기억'이라고 말한다. 또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케임브리지 병원 '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의 교육 이사를 맡고 있는 주디스 루이스 허먼은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이 곧 트라우마의 정체라고 설명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일구며 수많은 고군분투의 과정을 거친다. 매 순간 희로애락이 교차하며 자신의 세계를 쌓아 올리고 삶을 구성한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질 때 어떠한 철학과 신학과 법학의 논리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던 스테파니는 불현듯 알리에게 전화를 건다. 그녀는 집으로 온 알리와 함께 어두운 방에서 나가 바다로 향한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하게 된 바다 수영. 꼭꼭 참았던 한을 풀 듯 탄성을 지르며 스테파니가 말한다. '이제 야살 것 같아.'

그녀는 바다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유능했던 순간들을 떠올린다. 그리고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빛나는 삶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깨닫는다.

밀려오는 행복감은 그녀를 더 이상 어두운 방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의족을 하고 두 발로 걸으며 다시 범고래와 만나기 위해 수신호를 연습한다. 이때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케이티 페리의 '피어워크'가 너 자신이 바로 불꽃이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너의 가치를 보여주라고, 그녀에게 응원의 박수를 건넨다.

마사누스 바움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스'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지성에 두 차례나 선정된 바 있다. 일찍이 노암 촘스키와 움베르토 에코를 지명한 바 있는 이 잡지는 정치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마사누스 바움의 세계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마사누스 바움은 자신의 저서 '감정의 격동'에서 '연민'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서술한다.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자신의 경계선을 넓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내가 언제든 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혐오는 줄고 연민은 자란다.'

그녀의 주장은 간혹 취약한 감정으로 치부될 수 있는 연민이라는 감정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민을 배울 수 있을까. 그녀는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상상력을 통해 더 나아갈 수는 있다고 얘기한다.

영화는 우리가 연민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장치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감정에 도전받는다. 평소에는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내면을 자각하고, 등장인물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익히며 울고 웃는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때로 우리보다 더 곤란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는 포기하지 않고 싸우며 헤쳐 나간다. 우리는 그 과정을 따라가며 자신의 삶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한다.

스테파니 역시 비극에 우리를 동참시킨다. 한 줌의 햇살도 희망이 되지 않는 그녀의 고통에 간접적으로나마 아픔을 느낀다. 그리고 상처가 아무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깨닫는다. 우리는 모두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겐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안부를 전해요, 당신의 마음에게

마음을 다해 쓰고 그린 글과 그림, 음악이 전하는 특별한 위로들

write 최다솜(자유기고가) cooperate 디뮤지엄, 북라이프, 마스트엔터테인먼트



EXHIBITION

일상에서 발견하는 특별한 가치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날씨에 대한 작가들의 색다른 시선을 발견하는 전시다.

날씨를 주제로 독창적 미감을 보여주는 사진부터 촉각과 청각을 극대화한 설치작품까지, 세계적인 작가 26명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 17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마크 보스워, 마틴 파, 마리나 리히터 등 동시대 사진가들이 포착한 일련의 이미지를 통해 날씨에 관한 감각을 확장할 수 있다. 미로처럼 이어지는 길을 따라 관객은 물리적으로 구현된 안개를 촉감으로 경험하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사운드 수집가들이 채집한 빗소리에 몰입해 고요한 시간을 마주한다.

기간 2018년 10월 28일까지
장소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29길 5-6
리플레이스 한남 F동 디뮤지엄
문의 02-796-8166

BOOK

내 마음의 방향을 따라서

하루의 취향

좋아하는 음악, 책, 여행, 취미처럼 단편적인 것에서 시작해 사랑 취향, 사랑 취향, 삶에 대한 취향까지, 취향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그 넓은 바다에서 '나의 취향'을 건져 올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취향을 말할 때 조금은 주저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나'를 말할 때조차 스스로 타인의 시선을 끌고 와 '비교 지옥'에 입성한다. '하루의 취향'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마음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내 마음의 방향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남의 시선을 배제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고, 내 마음을 꼼꼼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선택하면 그뿐이다. 고상하고 우아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스스로와 마주하게 된다는 점이다.

글쓴이 김민철 출판사 북라이프



PLAY

마음과 영혼을 향해 말을 거는 몸짓

태양의 서커스 '쿠자'

'쿠자(KOOZA)'는 태양의 서커스 시리즈 중 가장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미국 유명 광대 아티스트인 데이비드 사이너가 집필 및 디렉팅한 작품으로, 국내 초연이다. '쿠자'는 '상자'를 뜻하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코자(KOZA)'에서 유래했다. 공연은 장난감 상자의 뚜껑이 열리면서 시작된다. 주인공은 순진무구하며 울적한 외톨이 여행자다. 그가 세계를 여행하며 만난 다양한 캐릭터들이 화려한 묘기를 펼친다. 왕, 사기꾼, 소매치기, 성질 사나운 애완견 등 우스꽝스럽고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이 끊임없이 눈을 즐겁게 한다. 최고 수준의 곡예와 예술적인 조명, 화려한 의상, 이국적이고 비트 있는 라이브 음악, 감동적인 스토리와 유머러스한 광대 연기의 조화가 돋보인다.

기간 2018년 11월 3일 ~ 12월 30일 문의 02-541-6236
장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내 빅탑



#Me too도 비껴가는 가정폭력

미투(Me too) 운동의 바람이 거세다. 너도나도 진실을 쏟아내는 움직임 속에서도 차마 용기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 얽힌, 가정폭력 피해자다.

사례1

지난해 6월, 초등학교 5학년 A양은 술 취한 아버지의 이유 없는 폭행에 팔이 골절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양의 엄마는 오래전 집을 나갔고, 지금은 친할머니, 알코올중독자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다. A양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견디기 힘들지만, 법적 미성년자인 데다 딱히 돌봐줄 사람도 없어 그저 하루하루 참고 버티는 상황이다.

사례2

지난 10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다 아내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내리치고 몸을 마구잡이로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에 억지로 참아가며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다. 물리적 폭력 외에 정서 학대와 경제적 학대 등을 포함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로부터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그러면서도 가족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죄책감과 경제적 불안감, 주거 문제 등으로 신고를 망설인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해 2580건에 달하는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통해 심리 치료, 법정동행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의료비,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고, 피해자들이 몸을 의탁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주선에도 나서고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가혹한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자. 그리고 오늘, 용기 내어 고백하자.

#Me too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WITH U 전문가 칼럼

가정폭력 피해자의 마음가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에게 당하는 폭력은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치유와 변화를 향한 굳은 마음가짐이다.

write 정근재(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정폭력 피해자는
정신건강질환이 만성화되어
우울증, 피해의식,
망상, 강박증,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게 된다”

최근 가정폭력 사례가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과 성별도 다양해지고 피해자의 특성과 피해양상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유교적 고정관념에 따라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감추어지고 무시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 이슈화, 인권 신장 및 성 평등 사회 구현 등에 의해 가해 및 피해 양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가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에서 기인하는 행동 장애의 한 증상이라는 점입니다. 내재된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적 행위는 적극적인 정신 의학적 치료가 즉각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정신건강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이럴 경우 질환의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세심하게 관찰하여 자연스럽게 치료에 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좌절과 분노, 회피와 충동의 늪에서 의식적으로라도 헤쳐 나와 정상시의 생활 리듬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은 가급적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의 일과를 평소대로 지속하여야 합니다. 일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피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누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는 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 지원 단체에 직접 상담하거나, 가족이나 주위에서 대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생활환경이 비교적 열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 외부의 경제적, 의료 및 행정,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의 충격과 현재의 수렁에서 벗어나 항상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음으로 더 나은 장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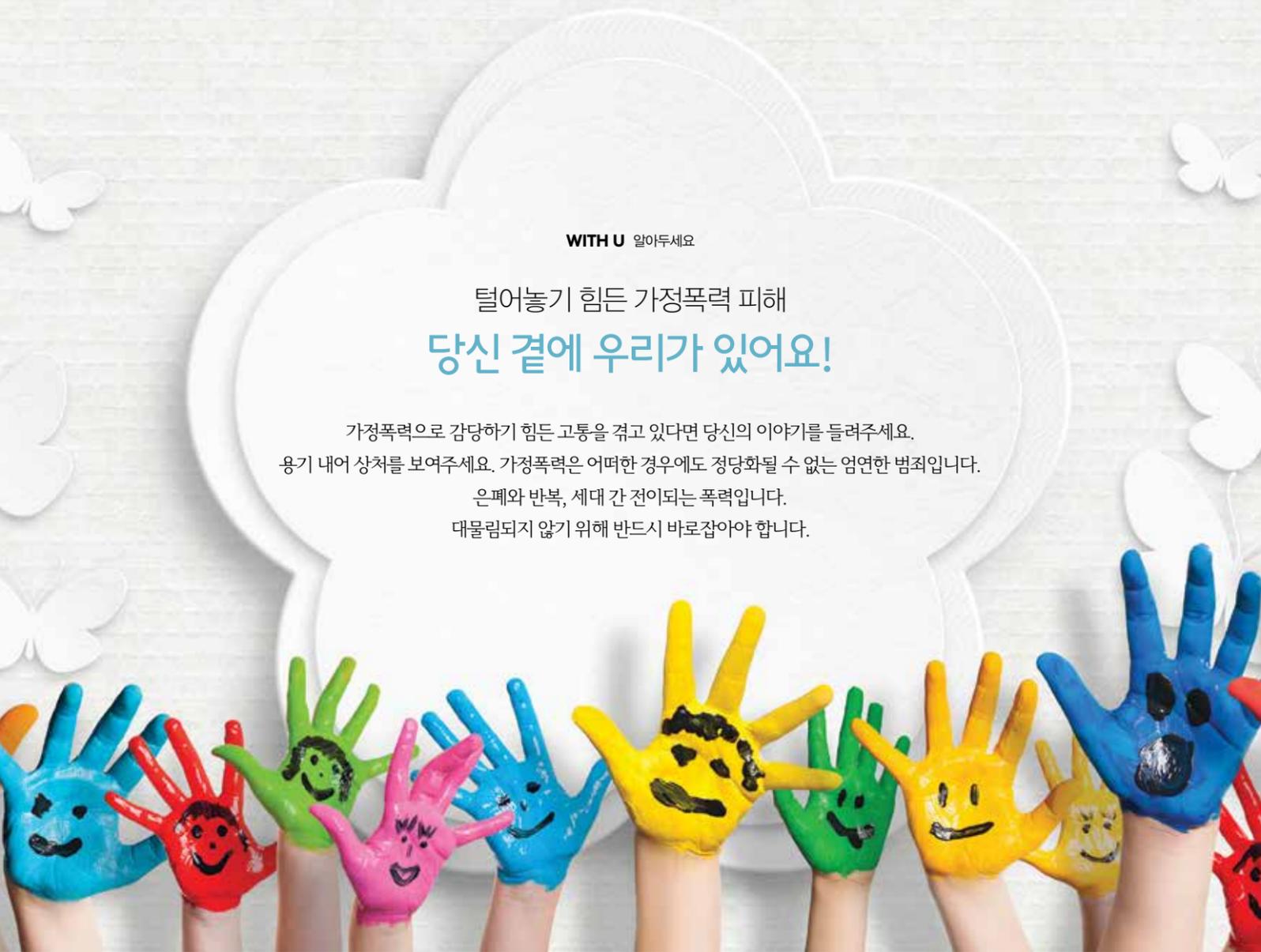


세상을 향한 한 걸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에 집을 나간 어머니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혼자 남겨진 저는 아버지의 기분 변화에 따라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저는 사람들과의 교류에 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억압받는 느낌이 들어 말을 더듬고, 작은 스킨십에도 긴장감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로 상담을 1년 넘게 받았지만 그 시간조차 견디기가 힘들어 돌아갈 때마다 목덜미가 빠근함을 느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에서 나와 생활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방학을 이용해 전단지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꾸준히 했지만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던 어느 날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후 청소년 쉼터에 머물며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성인이 되어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땅히 갈 곳도,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았던 곳이었는데, 알고 보니 동아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자립에 바탕이 되어 줄 생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해하던 저를 변화시킨 건 다음 아님 센터 선생님들의 진심이었습니다. 매번 두 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달려와 주신 것도 감사한데, 따뜻한 눈빛과 몸짓,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과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또 잘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시작한 운동으로 자격증도 뒀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처럼 세상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곁에서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WITH U 알아주세요

털어놓기 힘든 가정폭력 피해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용기 내어 상처를 보여주세요.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은폐와 반복, 세대 간 전이되는 폭력입니다.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또는 성적인 학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피해 시 행동요령



신고

경찰 112 / 경찰 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 여성긴급전화 지역 번호+1366

※ 위험한 순간이 닥치기 전 지역 내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 파악



상담 및 지원

전국 범죄피해지원센터

1577-1295 / 홈페이지(면접상담 예약) www.kcva.or.kr
- 피해자 보호, 경제·의료적 지원, 법정동행 등 피해 유형에 따른 조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go.kr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 피해 아동 보호·지원

여성긴급전화

지역 번호+1366
카카오톡 상담 : 검색창에 'women 1366'
온라인 채팅 상담 : www.women1366.kr
- 365일 24시간 전문상담원 연결. 긴급피난처 운영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www.child1375.or.kr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아동 법률 및 의료·교육 지원



당신 곁에 든든한 울타리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대상 확대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 2항을 근거로 LH공사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주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주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정 내용

1- 범죄피해자의 주거 지원(임대주택) 수혜 대상 범위 확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피해자 및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피해자까지 대상 확대

2- 신청 기간 명시 및 예외 인정(신설)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규정 적용. 단, 가해자 소재 발견 또는 가해자 출소 등 보복의 우려가 현저한 사유로 특별히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3- 지원 대상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 ①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 ② 주거지가 범죄현장 혹은 그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 ③ 기타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등 신변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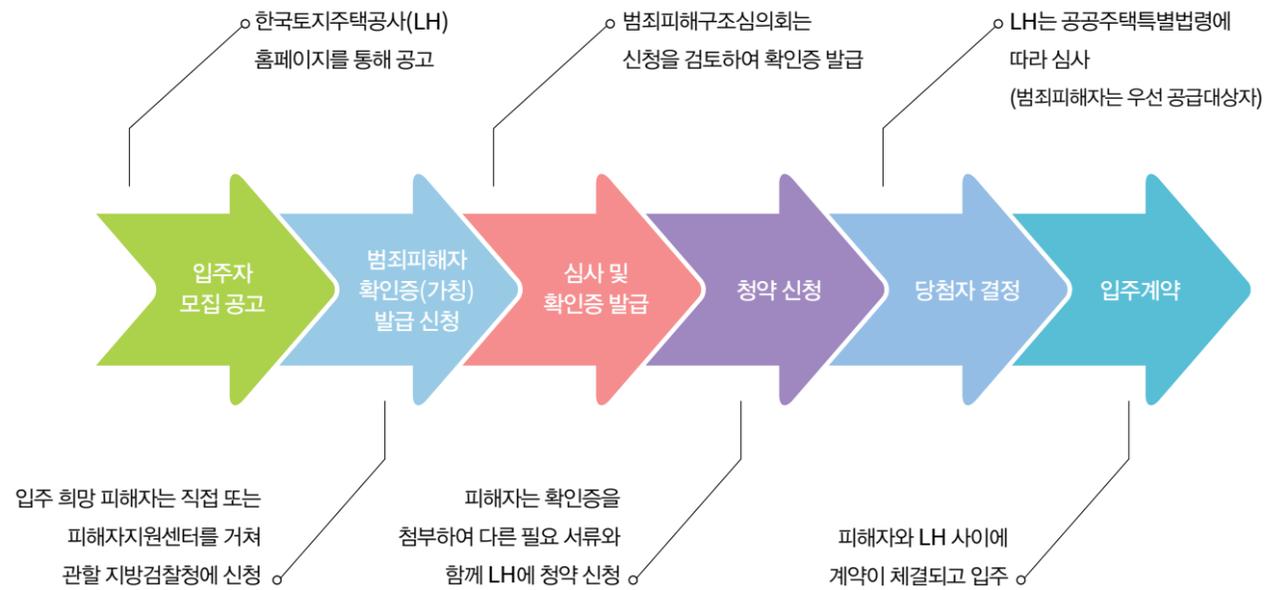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LH)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을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임대)해주는 사업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건설한 주택이 아닌 기존의 일반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업시행자 명의로 전세하여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

5—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절차



범죄피해 아동 돌봄 비용 지원

기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법무부 예규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지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운영규정을 근거 법령으로 지원된 간병비 등 부대비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을 2017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1—지원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 ① 13세 미만의 범죄피해 아동
- ② 범죄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의 자녀

* 본인 또는 가족이 범죄피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취약계층(한부모·맞벌이·조손가정·장애부모·저소득층), 기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2—지원 내용

지원 기준

돌봄서비스(민간 베이비시터·아이돌봄서비스·활동보조인 등) 이용 시 자부담 비용에 한해 지원

※ 돌봄비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가족 제외)

돌봄 비용의 시간당 단가는 7000~8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조정 가능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 등 정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받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본인 자부담액에 대해서만 지원함(중복지급 확인될 경우 환수 가능)

지원 한도

원칙적으로 최장 6개월 이내, 추가로 12개월 연장 가능(최장 18개월)

원칙적으로 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로 600만원 지원 가능(최대 900만원)

지급 방식

- ① 1인당 지원 누계액 300만원 이하: 연합회 검토 후 지원
- ② 1인당 지원 누계액 300만원 초과: 연합회 특별결의 후 지원

6개월(300만원 한도) 범위 안에서 2차에 걸쳐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 평소 생계 곤란(기초생활수급자·조손가정·한부모 가족 등) 여부, 일상생활 복귀 곤란 여부(의사 소견서 근거)를 고려하여 지원 연장 결정

3—지원 방법



신청 문의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www.kcva.or.kr

단순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되는 경우가 있다. 법정 출석 시 동행, 입회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정동행' 지원제도가 그렇다.



아름다운 동행 법정동행



법정동행 지원 사례 1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 짧은 순간에 오영은 씨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녀는 길을 걷고 있었고, 우연히 싸우는 두 남녀를 발견했다.

만약 당신이 싸우는 이들 중 하나였고, 그중 수세에 몰리고 피해를 보는 쪽이었다면, 그때 마침 지나가던 누군가가 싸움에 끼어들며 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준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 아마도 감사하고 안도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날 협박해요” 엄마한테 이르듯 다급한 목소리였다.

영은 씨는 덩치 큰 남자도, 배짱 좋은 아줌마도 아니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굉장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곤란에 처한 이웃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자가 영은 씨를 힘껏 밀어버렸다. 그녀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남자는 그녀의 가슴을 발로 밟아댔다. 늑골이 골절되고, 뇌진탕이 왔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 여기저기에 타박상이 남았다. 그녀가 가진 소박한 선의는, 상냥한 참견은, 무시무시한 폭력이 되어 돌아왔다. 2017년 가을의 일이었다. 서늘한 바람이 낙엽 사이를 파고들던 가을밤, 그녀는 겨우 이십대 미혼의 아가씨였다.

법정에 가야 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때렸는지 증언을 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법정에 가기 전부터 그녀의 몸이 떨렸다. 느닷없는 곳에서 만난 무서운 폭력이었다. 어제까지의 평온하던 세상이, 이제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처럼 보였는지 모른다. ‘왜 남의 싸움에 끼어들었을까’ 후회도 했을 것이다. 사건 이후 그녀는 자신의 몸에 자해를 했다. 그만큼 불안했다. 미치도록 무서웠다.

언니와 함께 법정에 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위원이 먼저 나와 있었다. 그는 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이기도 했다. 상담으로 여러 번 만나서 그런지 내 편이 늘어난 듯 안도감이 들었다.

영은 씨는 무서워하면서도 용기를 내서 증인석에 섰다. 판사는 그녀의 말을 귀담아들어 주었다. 방청석으로 돌아왔을 때 언니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이 그녀를 보호하듯 가운데 앉혔다. 잠시 후, 판사가 법정 안의 경위를 불렀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돌아온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법정구속을 명했다. 그 짧은 시간에 구속영장을 쓰고 돌아온 거였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영은 씨는 두려웠다. 자신을 가해한 남자에게 법정구속 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 그녀가 자해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은 재빨리 그녀의 두 손부터 잡았다.

영은 씨는 발버둥 치며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공포와 싸웠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손을 뿌리치기 위해 미친 듯이 힘을 썼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녀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119가 그렇게 늦게 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에게는 당시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법정동행 지원 사례 2

이민희 씨는 어느 날 사귀던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스토커처럼 주변을 맴돌았다. 다시 만나자고 문자도 보내왔다. 자기와 헤어지려 한다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겁이 난 민희 씨는 출근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딸이 안쓰러워 한동안 출퇴근길에 동행했다. 그래도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하지는 못했다. 만약 생각을 바꿔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면, 운명은 달라졌을까?

시작은 사랑이었다. 그렇다면 끝맺음도 최소한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사랑의 끝자락에서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다.

2016년 4월 19일이었다. 민희 씨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즈음, 남자는 자신의 손에 테이핑을 하고 있었다. 회칼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졸린 눈을 비비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남자는 그녀의 집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것도 알 리 없는 그녀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쏟아져 들어온 건 4월의 봄바람만이 아니었다. 한때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가 칼을 들고 민희 씨를 밀치며 집안으로 뛰어들었다. 하필이면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였다. 4월의 그 날, 벚꽃이 모두 떨어진 그 날, 민희 씨는 세상을 떠났다. 온몸에 다섯 군데의 자상을 입은 채였다.

딸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민희 씨의 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가슴에 화가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딸의 재판이 열리는 날, 부모는 집을 나섰다. 그들은 평생 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 아니, 알 필요가 없었다. 살인사건으로 딸을 잃고, 그들은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건지, 누굴 붙잡고 무얼 물어봐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런 그들을 맞이하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나섰다.

그는 부모들과 함께 법정동행을 했다.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에 끝까지 참석하고, 법률용어를 설명해줬다. 행여 재판에 참석할 형편이 안 되는 날이면 대신 법정에 가서 그날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알려주었다.

사건피해자 혹은 유족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알던 길, 익숙하게 오가던 길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 그들은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숲속에 갑자기 내던져진 사람들처럼 방황한다.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불안해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한다. 영은 씨는 법정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민희 씨의 부모도 예외가 아니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길을 잃은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심리상담을 받게 하고, 가족이 힐링 캠프에 참여하게 했다. 천천히 민희 씨의 어머니는 말문을 열어갔다. 자신의 심정을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내보이기도 했다.

‘그놈이 고개를 뺨뺨이 들고, 우리 딸이 원인 제공을 해서 그랬다고... 나는... 형량이 세계 나왔으면 좋겠다.’

가만히 묻혀 있었더라면 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 곪았을 말들이 심리상담 자리에서, 법정동행 자리에서 가슴을 열고 쏟아져 나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그들에게 ‘지금 이 탄원서를 쓸 때’라고 알려주었고, 딸을 잃은 늙은 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그들은 가슴 속 응어리진 이야기를 빠짐없이 옮겨 적었다. 결국, 딸을 살해한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모는 억울하게 떠난 자식을 위해 해준 일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판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 중인지 모니터링을 하고, 피해자들이 법정에 참석할 때 법정동행을 한다. 그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 준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지금까지 다녀간 피해자들, 피해자 가족들의 사건 기록이 뽁뽁하게 저장돼 있다. 오영은 씨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때와 같은 발작은 없었다. 세상을 떠난 이민희 씨의 사건 파일 앞장에는 작은 청첩장이 붙어 있다. 민희 씨 남동생인 종호 씨의 청첩장이다. 누나가 떠나고 1년 2개월 후, 남동생은 장가를 갔다. 가족들은 센터 직원들에게 새 출발을 알렸다. 청첩장에는 커플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예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피해자 유족이었던 한 가정은 그렇게 새 출발을 했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던 긴 터널과 수없이 이뤄진 법정동행, 법정 모니터링과 심리상담, 그 두툼한 기록지 맨 앞에 붙은 화사한 청첩장은 이렇게 끝맺음이 돼 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이 센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고 싶은 인사이기도 하다. 이 시련을 딛고, 부디 행복하시기를.



WITH U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Ⅱ

농약소주 사건 그 이후

2016년 3월, 경북 청송군 현동면 한 마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청송 농약소주' 사건. 마을회관에서 주민 2명이 소주를 나눠 마시다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다. 이들이 마시다 남긴 소주와 소주잔 등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흐른 지금, 마을은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한 사건 이후 마을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마을회관은 폐쇄됐고, 상당수 주민은 동네를 떠났다. 남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충격에 빠진
 아내도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 포항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그런데도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이 심해 외출이 힘들었다.
 의성군위청송센터는 거주지를 포항으로 옮긴 아내를 위해 포항센터에 연계하여 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맹인 탓에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활해온 아내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
 결국엔 아들이 직장을 휴직하고 포항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흘렀다. 그간 포항센터에서는 피해자 아내에게
 한글학교,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내
 는 꾸준한 상담을 통해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면서 힘을 내기 시작했다.
 한글학교에도 열심히 나가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
 으며 한글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불안장애도 호전됐다. 남편의 부재를
 현실로 받아들일게 됐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여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도 터득했다.

넣는가 하면, 힐링음악회, 우정사진 촬영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마련했다. 달라지는 마을 분위기만큼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하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예
 전처럼 구수한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 있던 마을회관
 의문이 다시 열렸다.

한편 의성군위청송센터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힘을
 쏟았다. 마을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동네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

이번 사례는 의성군위청송센터와 포항센터가 연계하여 이뤄낸 성과라
 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범죄피해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공동체가 일
 시적으로 파괴됐지만, 센터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통을 극복하려는 피해
 자들의 굳은 의지가 어우러져 알찬 열매를 맺은 셈이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사례

진심의 힘

당신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끝내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진심의 힘을 믿습니다.

“이야~ 성현이 얼굴 좋아졌네? 잘 지냈니?”

오늘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주말농장에 다 같이 모여 감자와 상추를 심고, 저녁에는 삼겹살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성현이 아빠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회사 동료와의 사소한 의견 충돌로 말다툼 끝에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독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6년. 이제는 스스럼없이 속내를 터놓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상황에 맞는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로서의 특성을 살려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오랜 기간 시행했던 몇 가지 지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기 지원 사례

피해유형_살인

사건 개요

2012년 4월 5일, 직장동료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가해자로부터 과도로 가슴과 복부를 찔렸으며
흉·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피해자 사망

생활환경

가장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해자 가족 생계유지가 곤란하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대인기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발병

지원 사항

유족구조금 신청 절차 안내, 생계비 및 치료비, 장례비 지원과
지속적인 상담으로 심리 안정 도모



피해유형_아동학대

사건 개요

2014년 8월 24일, 의사가 양쪽 눈과 종아리에 멍든 흔적이 있는
아동을 치료하던 중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

생활환경

당시 11세였던 피해아동은 지적장애 경계선에 해당.
어머니는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자녀 셋을 양육하기에 불가능한
상황. 피해자의 동생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지원 사항

주 1회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대면상담 진행.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환경 지속적으로 확인. 개별 심리치료 외에 집단상담,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참여 권유. 생활수급자로 지정되도록 노력

유관기관 연계 통합지원 사례

피해유형_성폭력

사건 개요

2013년 1월 25일,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해자가 성폭행을 시도.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하던 과정에서 상해를 입음

생활환경

피해자는 식당에 딸린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으며 극심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여 더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지원 사항

피해자 주거지에 CCTV 설치 및 개별 심리치료 진행. 재판 관련 법정동행 지원과 개별 심리치료 종결 후 집단상담 및 자조모임 등 적극 권유



피해유형_방화

사건 개요

2015년 2월 24일, 가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했다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상해를 입힌 사건

생활환경

피해자는 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고 생계가 매우 어려우며 실명, 뇌 손상, 호흡기 손상 등 중상해로 요양병원 장기 요양이 필요함

지원 사항

중상해 구조금 절차 안내, 긴급 생계비 및 치료비, 간병비 지원 및 심리상담 10회 실시

피해유형_학교폭력

사건 개요

2014년 10월 3일, 학교 선배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해 경막상혈종,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 피해를 입음

생활환경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아들을 위해 간병을 전담하게 된 상황

지원 사항

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및 심리상담 60회 지원 및 물품 지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현재 재활치료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회복에 호전을 보임

피해유형_방화

사건 개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페트병에 넣어 피해자 거주지에 투척하여 거주지 소실, 피해자 언니 사망, 피해자 모친 및 피해자 중화상

통합지원 내역

검찰청: 구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한전병원(화상전문병원): 치료비 감면 지원
현장정리전문업체: 사건 현장 신속 정리
구청: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KBS 사랑의 리퀘스트: 3000만원 후원 결정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및 센터: 생계비 및 치료비, 장례비 지원

피해유형_아동 살인

사건 개요

공원 놀이터에서 8세 여아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아파트 물탱크에 유기한 사건

통합지원 내역

검찰청: 유족구조금 및 이전비 지원
스마일센터: 가족 전체 심리상담 수차례 실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례비, 학자금, 생계비 및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 모니터링 지원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진행 지원
은행: 전세금 대출 가능토록 조치

피해유형_성추행

사건 개요

8세부터 5년간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가정폭력으로 전남편과 이혼 후 현재 의붓아버지와 재혼한 상황이며 같이 살고 있는 오빠도 전과가 있음

통합지원 내역

법원: 이혼 절차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 협조
시청: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검찰청: 국선변호인 지정
성폭력피해자센터: 피해자 상담 및 보호
협력병원: 불안 증세 및 불면증 치료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활동 소식

KCVA news



제5회 다림안심캠페인 개최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5회 다림안심 캠페인이 지난 6월 16일 서울 광화문과 청계천 일대에서 열렸다. 다림안심캠페인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후원을 장려하자는 취지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에스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육현표 에스원 대표, 범죄피해자 가족 등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사전 행

사에서는 범죄피해 청소년들로 구성된 밴드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노래하는 공연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기금마련 나눔걷기는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천을 따라 세운교까지 약 4km의 코스를 완주하면 에스원이 1명당 2만원씩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장 주변에는 범죄피해자 및 지원 현황을 알리는 부스와 다양한 홍보물이 전시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야구경기 관람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6월 8일 NC문화재단과 함께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야구 관람을 지원했다. 이날 경기에 초대된 50명의 참가자들은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를 관람했다.

신입 직원 교육 시행

2017년도 이후 임용된 전국센터 신입 직원 교육이 지난 4월 13일 실시됐다. 교육은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직무 이해와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재무회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e나라도움 강의에는 조병호 인천센터 사무처장이, 회계 교육에는 서울 북부센터 윤수영 선임이 참여했다.



e나라도움 정산 설명회 개최

지난 1월 29일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e나라도움 설명회가 열렸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해 통합 관리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이론 전반과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방법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2018 상반기 권역별 회의 개최

2018 상반기 권역별 회의가 개최됐다. 총 세 차례 진행된 회의에서는 종사자 교육,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법안 발의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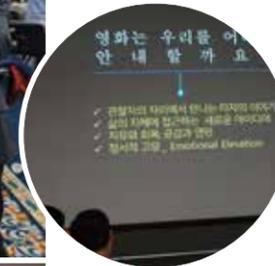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 회의

지난 6월 12일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 회의가 개최됐다.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센터 활동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감 발간, 종사자 교육,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2018년 정기총회 개최

2018년 정기총회가 김갑식 회장을 비롯한 전국센터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3일 웨라톤 서울 팰리스 강남 호텔(구 더 팰리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 2017년도 수지결산 승인의 건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 결했다.



전국센터 직원 워크숍 실시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전국센터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해피투게더 심포 셋'이라는 주제로 전국 59개 센터 종사자들의 단합과 재충전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청풍호반의 호젓한 자연에서 일상의 피로를 해소하며 피해자 지원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 센터 종사자 교육 관련 회의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관련 회의가 열렸다. 총 세 차례(4월 26일·5월 18일·5월 31일)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는 교육과정과 운영 방안, 기타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 시기는 준비 상황에 따라 실정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대구 지역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홍보

대전센터, 대구경북센터, 대구서부센터가 5월 12일과 17일 이틀간 에스원과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범죄 피해에 대해 아시나요?' 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하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소식

CENTER news



서울중앙센터

피해자전담경찰관 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센터는 지난 4월 11일 관내 경찰서 10개소의 범죄 피해자지원전담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 방안과 유기적 업무협조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서울동부센터

제5회 다림안심캠페인 참가

서울동부센터가 지난 6월 16일 서울 광화문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제5회 다림안심캠페인에 참가했다. 센터 임직원 및 위원 등 30여 명은 4km 코스를 완주하면 기부금이 적립되는 나눔걷기에 동참, 단 1명의 이탈자 없이 완주를 마쳐 큰 힘을 보탰다.



서울남부센터

여성·살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자조모임 실시

서울남부센터가 관내 여성·살인 범죄피해자 정서치유를 위한 자조모임을 실시했다. 범죄피해자 및 가족 12명은 충북 청주에 있는 청남대와 상수허브랜드를 방문해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서울북부센터

법률구조사업 지원

서울북부센터가 이혼 및 양육비·위자료청구 소송,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개명, 친권상실청구 등 총 8건의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했다. 법률구조사업이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서부센터

행복나눔 일일찻집 운영

서울서부센터가 범죄피해자 지원금 조성을 위한 '행복나눔 일일찻집'을 검찰청사 내 행복마루 카페에서 운영했다. 3월 14일 열린 일일찻집에서는 쿠폰 판매 및 모금함을 통해 총 296만원의 기금이 모였다. 모금액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고양파주센터

상반기 힐링체험 활동 실시

고양파주센터가 지난 4월 14일 용인 한국민속촌과 경기도박물관에서 힐링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죄피해자와 가족 40여 명이 참여했다. 고양파주센터는 개별심리치료, 집단상담, 자조모임, 힐링체험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5단계로 구성된 힐링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천센터

'행복 나눔 밭' 주말농장 프로그램 운영

인천센터가 지난 4월 28일부터 '행복 나눔 밭'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관내 토지를 무상 임대받아 친환경 농법으로 농작물을 키우고 있다. 수확한 농산물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부천김포센터

심리회복 돕는 맞춤형 치유 활동 시행

부천김포센터가 생업 등을 이유로 심리치료 상담에 제때 참여하지 못하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맞춤형 치유 활동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부천김포센터는 상담자격증을 소지한 경력자를 센터 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주말과 저녁 시간을 포함한 가정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센터

유관기관 간담회 진행

수원센터는 지난 3월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검찰청, 관내 경찰서, 지자체, 유관기관 범죄피해자지원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자지원 활성화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성남광주하남센터
통합지원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성남광주하남센터가 지난 4월 17일 통합지원네트워크 활성화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화담숲 일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통합지원네트워크 기관장 및 단체장, 임직원 등 3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워크숍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여주이천양평센터
여성장애인 범죄피해자 수용시설 '소빛' 위문

여주센터이천양평센터가 지난 2월 13일 여성장애인 범죄피해자 수용시설 '소빛'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센터 이사장과 운영위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소빛'을 직접 찾아가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애로사항을 듣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시간도 가졌다.



평택안성센터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운영

평택안성센터가 지난 3월 27일 사회적기업 무지개공방에서 자조모임을 운영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우울증 감소와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공예 체험을 진행했다. 자조모임은 범죄피해자 간의 소통과 상채 공유를 통해 치유 의지를 고취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안양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총력

안양센터가 지난 5월 5일 군포시민체육공원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는 단국대 법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캐릭터 노트, 문화상품권 등 기념품과 센터 로고인 파랑새가 그려진 풍선 등을 나눠주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렸다.



춘천센터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동계올림픽 관람

춘천센터가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람을 지원했다.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들은 2월 22일 강릉올림픽파크를 관람하고 경기장 주변 지역을 관광했다. 이번 행사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 및 정서를 환기하고 나아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속초센터
장애인피해자 및 소외계층 시설 방문

속초센터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소외계층이 기거하는 속초 한우리공동체, 양양 정다운마을, 고성 아모르들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센터 이사장과 부이사장, 위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 고민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강릉센터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

강릉센터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월 18일 강릉지청에서 관내 경찰서, 종합병원, 올림픽조직위원회,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고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영월센터
설맞이 불우이웃돕기 행사 개최

영월센터가 지난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설맞이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했다. 영월센터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등유,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안산시흥광명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거리 캠페인 실시

안산시흥광명센터가 지난 4월 16일 시흥시 정왕동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센터 임원 및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국어로 제작된 홍보물을 배포하며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대전센터
제3회 바리스타 교육 수료식

대전센터가 제3회 바리스타 교육 수료식 및 자격증 전수식을 했다. 2018년 1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전검찰청사 내 희망카페 2호점에서 진행된 바리스타 교육에는 범죄피해자를 포함하여 13명이 신청,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홍성센터
숲과 커피가 있는 자조모임

홍성센터가 지난 5월 29일 보령 신죽리 수목원에서 범죄피해자 가족 자조모임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30명의 피해자 가족들은 숲을 거닐고 바리스타 체험에 나서는 등 자존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공주청양센터
멘토와 멘티의 아름다운 동행

공주청양센터가 지난 5월 24일 동행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동행 체험 프로그램은 센터 위원과 피해자 가족이 멘토, 멘티로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32명은 부여 석성면 양송이마을과 서천 국립생태원을 찾아 색다른 체험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청주센터
심신치유 프로그램 '바느질테라피'

청주센터가 상반기 심신치유 프로그램으로 바느질테라피를 진행했다. 바느질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몰입할 수 있어 잡념을 떨쳐내는 데 효과가 좋다. 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평화가 찾아들어 치유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다.



충주음성센터
피해자와 떠나는 희망나들이

충주음성센터가 피해자와 함께 떠나는 '희망나들이'를 실시했다. 센터 직원 및 범죄피해자, 심리상담가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피해자들의 자립 의지와 정서 치유는 물론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논산부여계룡센터
통합지원네트워크 협의회 워크숍

논산부여계룡센터는 지난 3월 27일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협의회 워크숍을 실시했다. 워크숍은 범죄피해자의 초기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산센터
음식을 통한 마음 회복

서산센터는 5월 30일 서산시 동문동 소재 꽃시루이야기에서 범죄피해자 10명을 대상으로 푸드테라피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변화를 응원하는 마음 케이크'라는 주제로 앙금 컵케이크를 만들며 심리적 안정을 취했다.



제천단양센터
범죄피해자 가족과 즐기는 템플스테이

제천단양센터가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 5월 16일 템플스테이 행사를 가졌다. 제천경찰서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염주 만들기, 참선수행,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영동옥천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영동옥천센터가 6월 1일부터 1박 2일간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을 초청해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영동 송호관광지에서 카누와 카약을 타고 캐러밴 캠핑을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즐겼다.



천안아산센터
피해 유형별 자조모임 운영

천안아산센터가 지난 6월 5일 같은 상처를 가진 피해자 가족들을 모아 자조모임을 결성하고 집단상담을 실시했다. 센터에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센터
유관순상 수상금 전액 기부

제17회 유관순상을 수상한 대구경북센터 신동학 의료자문위원이 부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 전액을 대구·경북 지역 범죄피해 청소년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기부했다. 신동학 위원은 여성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실천 등을 인정받아 유관순상을 수상했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하는 여성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대구서부센터
범죄피해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대구서부센터가 계명대학교 심리학과와 연계하여 범죄피해 아동의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센터는 일주일에 한 번 아동의 집을 방문해 놀이와 미술 기법을 활용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미술치료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내면의 욕구와 동기를 표출하도록 도와준다.



경북북부센터
행복 담은 가족사진 촬영

경북북부센터가 가정폭력으로 아이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여성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했다. 아이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촬영한 사진을 액자에 넣어 전달한 것이다. 경북북부센터는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줄이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상주문경예천센터
심리치유 프로그램 3회 운영

상주문경예천센터가 '내 마음 더하기, 빼기, 곱하기'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세 차례 진행했다. 상주문경예천센터는 집단 심리치유 상담과 세죽식, 아로마 마사지 등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의성군위청송센터
범죄피해자 가족 돕기 일일чат집 운영

의성군위청송센터는 지난 4월 20일 의성축협 회의실에서 일일чат집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범죄피해자 가족 돕기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센터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주센터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설명회

경주센터가 2016년 10월부터 매달 운영 중인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설명회'가 제20회를 맞이했다.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설명회는 센터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피해회복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서비스다.



포항센터
여성 자아성장 프로그램 운영

포항센터가 성폭력, 가정폭력, 배우자의 사망 등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자아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격검사 △감정코칭 △말하기코칭 등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부산센터
범죄피해자 인권보호교육 실시

부산센터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친구 간의 갈등 해소 방법, 성폭력 예방, 범죄피해자 인권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부산동부센터
범죄피해자 흉터제거수술 지원

부산동부센터가 전 남편이 휘두른 칼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흉터제거수술을 지원했다. 이번 치료는 부산동부센터의 협력기관인 센텀코어 성형외과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피해자는 상처회복을 위해 11월까지 치료 지원을 받게 된다.



김천구미센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시행

김천구미센터가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지역 내 주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시행했다. 김천구미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승인한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시설을 갖춘 제1호 센터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울산센터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울산센터가 울산광역시 남구청,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울산문화예술회관 등 유관기관들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센터
오감만족 정서심리지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경남센터는 지난 5월 23일 오감만족 정서심리지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원예,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범죄피해자의 정서적인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진주센터
피해자 대상 문화체험 행사 개최

진주센터는 지난 6월 1일 범죄피해자 25명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집단 심리치유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아트볼을 이용한 나무 심기, 한려해상수도 탐방 등 자연과 역사를 느끼는 알찬 일정으로 기획됐다.



마산함안의령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홍보영상 방영

마산함안의령센터가 제작한 범죄피해자 지원 홍보영상이 CJ 헬로 경남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창원시 외 12개 지역에서 모두 4회에 걸쳐 방영된 영상에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 사업과 센터의 지원 활동 모습이 담겼다.



광주전남센터
범죄피해자 주거환경 개선

광주전남센터가 지난 5월 11일 범죄피해자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범죄피해자 가정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낡은 집을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선정해 생활공간을 개선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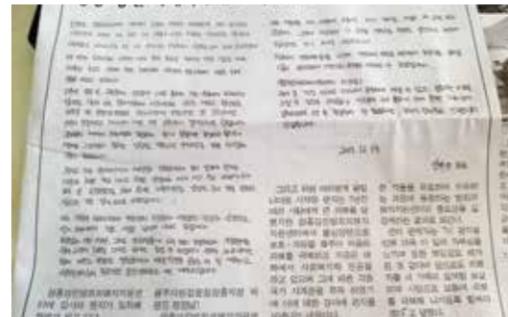
통영거제고성센터
전국 최초 범죄피해자에게 생필품 할인

통영거제고성센터는 지난 4월 17일 농협·축협 등과 '범죄피해자 지원 파랑새 가맹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영지청 또는 센터가 지정한 범죄피해자는 파랑새 가맹점에 등록된 지역 마트 8곳에서 생필품을 구매할 때 20%가량 할인 혜택을 받는다. 살인 피해자의 경우 유족 1명에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밀양창녕센터
밀양아리랑축제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홍보

밀양창녕센터가 지난 5월 17일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장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품 및 홍보물 배포와 함께 희망트리 만들기, OX 퀴즈 등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되어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장흥강진센터
성폭행 피해자의 감사 편지 '잔잔한 감동'

장흥강진센터에 도착한 한통의 감사 편지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편지의 주인공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으로 2010년부터 약 6년간 장흥강진센터를 통해 미술심리치료, 상담, 학자금 등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전남동부센터
강도 피해자 가정에 방법창 교체 지원

전남동부센터가 강도 침입으로 3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방법창 교체를 지원했다. 센터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침입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데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 전남동부센터는 향후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거창합천함양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실시

거창합천함양센터가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나섰다. 폭력성이 높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자원봉사자를 밀착 배치하여 피해자가 신변에 대한 안전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남완도진도센터
범죄피해자 헬스투어 개최

해남완도진도센터가 순천시 일원에서 범죄피해자 헬스투어를 개최했다. 범죄피해자 헬스투어는 피해자의 고통과 후유증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치유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범죄피해자를 비롯해 피해자 가족, 자원봉사자, 경찰관 등 25명이 참여해 웃음치료 강좌, 순천만국가정원 관람 등 심리치유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전주센터
다양한 홍보 캠페인 전개

전주센터가 지난 5월 24일 열린 제7회 젠더문화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홍보부스에는 강력사건 피해자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희망게시판을 별도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 6월 14일에는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전주스마일센터와 함께 전북대학교 일대에서 길거리 홍보에 나섰다.



정읍센터
피해자 자조모임 개최

정읍센터가 4월 10일 피해자 자조모임을 실시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위로를 얻었다. 자조모임은 '나는 혼자다' '나만 피해를 당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센터
일본 와카야마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제주센터 임원 및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와카야마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 세미나를 통해 교류 활동을 펼쳤다. 제주센터는 2009년 와카야마친선협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양한 민간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군산익산센터
법의 날 기념 종합지원활동

군산익산센터가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기념해 종합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군산적십자봉사관 마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군산의료원, 군산시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한적십자군산지구협의회가 참여해 법률 및 의료 상담을 무료로 진행했다.



남원순창장수센터
사랑의 보금자리 주택 준공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주택 준공식이 지난 6월 15일 개최됐다. 남원순창장수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신축 주택은 센터 위원들의 기부를 받아 조립식이며, 15㎡ 규모로 지어졌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2-596-1295
한국범죄피해지원중앙센터	02-534-4901
서울동부범죄피해지원센터	02-455-4954
서울남부범죄피해지원센터	02-2645-1301
서울북부범죄피해지원센터	02-3399-4776
서울서부범죄피해지원센터	02-3270-4504

경기·인천	
경기북부범죄피해지원센터	031-820-4678
고양·파주 범죄피해지원센터	031-932-8291
인천범죄피해지원센터	032-860-4518
부천·김포범죄피해지원센터	032-329-2580
수원범죄피해지원센터	031-211-0266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지원센터	031-715-0090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지원센터	031-885-1188
평택·안성 범죄피해지원센터	031-656-2828
안산·광명·시흥 범죄피해지원센터	031-475-3310
안양범죄피해지원센터	031-387-0050

강원	
춘천범죄피해지원센터	033-244-0335
강릉범죄피해지원센터	033-641-4163
원주·횡성 범죄피해지원센터	033-742-3100
속초범죄피해지원센터	033-638-1111
영월범죄피해지원센터	033-375-9119

대전·충청	
대전범죄피해지원센터	042-472-0082
홍성범죄피해지원센터	041-631-4915
공주·청양범죄피해지원센터	041-856-2828
논산·부여·계룡범죄피해지원센터	041-745-2030
서산범죄피해지원센터	041-660-4377
천안·아산범죄피해지원센터	041-556-9494(천안) 041-533-6090(아산)
청주범죄피해지원센터	043-288-0141
충주·음성 범죄피해지원센터	043-856-2526
제천·단양 범죄피해지원센터	043-643-1295
영동·옥천 범죄피해지원센터	043-742-3800

대구·경북	
대구·경북 범죄피해지원센터	053-740-4440
대구서부 범죄피해지원센터	053-573-7400
경북북부범죄피해지원센터	054-854-7600
경주범죄피해지원센터	054-773-4595
포항범죄피해지원센터	054-276-8112
김천·구미 범죄피해지원센터	054-430-9091(김천) 054-462-9090(구미)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지원센터	054-533-6047
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지원센터	054-830-4548
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지원센터	054-730-4679

부산·울산·경남	
부산범죄피해지원센터	051-558-8893
부산동부범죄피해지원센터	051-781-1144
울산범죄피해지원센터	052-265-9004(울산) 055-366-9011(양산)
경남범죄피해지원센터	055-286-8286
진주범죄피해지원센터	055-748-1301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지원센터	055-648-6200
밀양·창녕 범죄피해지원센터	055-356-8272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지원센터	055-945-2325
마산·합안·의령 범죄피해지원센터	055-242-6688
부산서부범죄피해지원센터	051-205-4497

광주·호남	
광주전남범죄피해지원센터	062-231-4752
목포범죄피해지원센터	061-279-1230
장흥·강진범죄피해지원센터	061-863-3636
전남동부범죄피해지원센터	061-722-2544
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지원센터	061-537-1301
전주범죄피해지원센터	063-276-8804
군산·익산범죄피해지원센터	063-452-3012
정읍범죄피해지원센터	063-534-8295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지원센터	063-634-2828

제주	
제주범죄피해지원센터	064-756-7004



‘극복하기 학교’ 선생님들께

제가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지 모르는데 ‘과연 내가 이 귀한 나랏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 너무나 고민이 되어 엄마께 여쭙었습니다.

“엄마, 상황이 대충 이리이러한데,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요.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운아, 맘 흘리지 않은 돈은 돈이 아니고 종이 찌가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네가 힘을 내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고 훗날 사회에 다 베풀어라. 맘 흘리지 않은 돈은, 절대 네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요.

성범죄 피해 이후 정신적인 절망과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센터에서 깊게 들여다봐주시고 마음으로 보듬어 안아주시고, 부모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잘 이끌어주셔서 ‘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세상이 내가 두려워하던 것만큼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닐지도 몰라!’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성범죄였기에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댈 곳도 없이 혼자인 것만 같아 외로웠어요. 센터의 도움이 없었다면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센터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면서 한동안 따뜻한 학교에 다닌 기분이었습니다. 영망이 되어버린 제 삶과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온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꿈꾸는 것도 사치인 저에게 “윤주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사랑하는 우리가 있잖아! 힘을 내! 할 수 있어” 라며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셨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마음을 저에게 쏟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극복하기 학교’ 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일구고 계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나눔에 저도 열심히 배워서 동참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서, 더 열심히 살아서 이 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지금처럼 별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비려 갈게요.

2018년 3월 28일
이 세상의 딸 김서윤 올림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강력범죄피해자 구호전화

1577-129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강력범죄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의료, 경제적 지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강력범죄피해자구호전화 T. 1577-1295 www.kcva.or.kr